

풍년에도 농민들은 울상... 뚝뚝한 수 없는 정부, 걱정 태산

쌀 도매가 4만6000원선...1년 만에 1만원 가까이 ↓ 올해 벼농사도 풍작...생산량도 작년과 비슷할 전망 9000억원 투입해 초과 생산량 37만t 전량 시장격리

올해도 벼농사는 지난해에 이어 풍년이 예상된다. 봄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가 잦았지만 대체로 벼농사에는 별다른 해를 입히지 않았다.

정확한 생산량은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소폭 줄었음에도 생산량은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추수철을 맞은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농민단체는 트랙터로 수확을 앞둔 눈을 갈아엎고, 대로변에 나락을 쌓아 불태우는 등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례 없는 쌀값 폭락으로 올해 들어 연일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지만 유독 쌀값만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5일 기준 쌀 20kg 도매가격은 4만6888원으로 1년 전(5만6380원)보다 9492원(16.8%) 하락했다.

지난해 쌀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증가하고, 생산량도 388만2000t으로 전년 대비 10.7%(37만5022t) 늘었다. 근래 보기 드문 풍작이었지만 쌀 가격은 농민들의 마음과 다르게 움직였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쌀값이 물가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뀐 셈이다. 대부분의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유독 쌀값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격리는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유통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가을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 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쌀값이 곤두박질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0만에 이어 5월 12만 6000t을 매입했다. 하락세가 꺾잡을 수 없이 이어지자 8월에는 10만t을 추가로 매입했다. 지난해 수요량(361만t) 대비 초과 생산된 쌀 27만t이 넘는 양을 모조리 사들였다.

하지만 전국 농협 쌀창고에 쌓인 구곡(묵은쌀)은 포화상태다. 농협에 따르면 8월 기준 농협 구곡 재고는 31만3000t으로 전년(15만4000t) 대비 두 배나 늘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43만여t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재고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법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매입 물량이나 시기에 있어서는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지난해 초과 생산분 이상을 시장격리 조치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재고량이 많아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

족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년 전 이맘때 쌀 20kg 도매가격은 5만7356원으로 2020년 5만780원 보다 12.9% 비쌌다. 평년(4만3427원)과 비교하면 무려 32.1%나 오른 상태였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서두르기에 가격이 평년에 비해 유난히 높게 형성됐고, 이 상태로 조기 시장격리에 들어갔다면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뻔했다.

지난해 10월은 소비자들이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는 등 물가 폭등의 기운이 엄습하는 시기였다. 정부로서는 물가 관리 1순위 품목인 쌀값 변동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비축분(작년 기준 35만t) 외에 추가로 시장 격리 조치를 할 경우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시장 격리를 할 때는 시세를 반영해 값을 치르는데 평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수확량 증가로 쌀값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일부 농가에서는 값을 더 쳐줄 것이라 기대에 출하를 일부러 늦춘다는 얘기도 돌았다. 그럴수록 재고량은 더 쌓였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초과 생산분을 포함한 37만t을 시장 격리하는 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1조원 가까운 혈세를 쓴 셈이다.

시장 격리한 구곡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매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결국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 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시장 격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올해와 같은 쌀값 하락세가 수확기를 지나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농협은 매월 재고 소진물량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확철인 다음 달 구곡 재고는 15~18만t, 신곡은 33~39만t으로 총 50만t 이상의 공공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재고량이 계속 쌓이면 가격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향후 수년 간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과잉 생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D)이 올해 초 발간한 '농업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올해 381만5000t에서 2031년 349만1000t 수준까지 줄어든다.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356만1000t에서 327만3000t으로 감소해 10년 뒤에도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21만8000t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측한 공공과잉 물량 25만4000t과 비슷한 수준으로 앞으로는 매년 20

만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쌀값 폭락에 대응해 이달 중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립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돼 이달 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하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의 올해 작황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고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전략적물 직불제 예산(720억원)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조수석 대신 거치대”...현대차그룹, 미래 PBV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이후 내용을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모빌리티)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UX 테크데이 2022' 이벤트를 열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개발 중인 PBV 테스트 벙(Test Buck) 등 PBV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개발 방향성을 담은 결과물을 공개하고, PBV 미래 UX개발 방향과 기술 개발 성과 등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차량 초기 콘셉트 개발을 시작으로 양산 직전 상품성 검증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UX에 대한 고객의

견을 듣고, 이를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 UX 연구개발 전용 공간이다.

현대차그룹은 PBV 초기 개발 과정에서 콘셉트 개발을 위해 나무로 만든 '스터디 벙'과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엔지니어링 벙'을 전시해 차량 초기 콘셉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실제화되는지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전시된 엔지니어링 벙은 20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공함을 오가는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공함 픽업용 PBV'를 콘셉트로 개발했다.

여행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최적화된 기술을

2025년 이후 출시 PBV

대거 반영한 것이 특징이로데 조수석 대신 캐리어 거치대를 마련했고 트렁크 공간 대신 탑승 공간을 뒤쪽까지 넓혀 최대 다섯 명이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일반 승객뿐 아니라 교통 약자의 탑승 편의를 고려해 휠체어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극대화한 도어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밖에도 이날 UX 스튜디오 서울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고객 중심의 차량 UX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함께 전시됐다.

현대차·기아와 미국 MIT 미디어 랩이 공동으로 개발한 '반응형 PBV 시트 콘셉트'는 시트 승객의 몸을 알아서 감지한 뒤 체형에 맞게 시트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PBV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긴 벤치 모양의 좌석을 승객 수와 체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현대트랜시스도 사용자별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교통약자를 위한 생체 신호 분석 기술, 유아를 동반한 가족 승객의 실내 공간 활용성 증대 기술 등 탑승객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실내 환경을 최적화한 10가지의 통합 시나리오 모드를 구현했다.

이날 전시장에는 'UX 메타 스튜디오'가 마련돼 참석자들이 VR(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온라인 UX 리서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최이슬기자

골프존마켓, 최대 60% 할인 '골프대전'



골프존커머스가 운영하는 '골프존마켓'은 10월10일까지 국내·외 인기 브랜드의 골프용품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골프대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골프대전은 골프존마켓의 연중 최대 할인 쇼핑 페스티벌이다. 골프존마켓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된다. 골프클럽을 비롯해 가방, 골프화, 골프볼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특별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다.

또 ▲구매 금액대별 최대 10만원 할인 쿠폰 증정 ▲골프존마켓 100호점 돌파 기념 이벤트 ▲브랜드 골프공 10% 할인 ▲구매 금액대별 경품 응모권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골프존마켓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골프존의 가

정용골프 시뮬레이터 '비전홀' 구매 시 15% 이상 할인, 사은품 제공과 마일리지 적립 등의 구매 혜택을 자랑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골프클럽의 경우 스틱스 드라이버(ZX5·ZX7), 브리지스톤 NEWJGR 드라이버, 엘로드 M900 LE 7 드라이버, 포틴 SC-22 웨지, GIGA ZETA+ 퍼터 등을 특별 기획가로 구매할 수 있다.

드라이버와 아이언 세트 구매 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 드라이버는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핑, 브리지스톤, PXG, 혼마 등이다. 아이언 세트는 스틱스, 브리지스톤, 캘러웨이, 혼마, 로마로, PXG, 핑 등이 해당된다.

골프용품으로는 ▲테일러메이드 MODERN 골프백 ▲핑 HOOVER 스탠드백 ▲미즈노 JPX 006 골프백 ▲아웃조이 FLEX SL 2 골프화 ▲에코 S-CASUAL 골프화 ▲카스코 합피 골프장갑 등이 특별 할인가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골프존마켓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전국 골프존마켓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데이비드토이, '포켓몬스터 체인징 피규어' 출시

어린이 완구 기업 데이비드토이는 '포켓몬스터 체인징 피규어'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엔 출시한 피규어는 포켓몬스터의 인기 캐릭터와 몬스터볼로 구성된 상품이다. 피규어를 포함 이상해꽃, 이브이, 뮤 등 총 8종류로 출시됐다.

신제품은 몬스터볼 안에 포켓몬 피규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변신할 수 있다. 피규어는 약 10cm 크기이지만 돌리게 변신하면 몬스터볼에 들어간다.

실제 애니메이션처럼 몬스터볼 안에서 포켓몬들이 나오는 장면을 재현하며 가지고 놀 수 있어 어린이와 키덜트(어린이 감성을 가진 성인)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비기자



데이비드토이는 향후 포켓몬스터 체인징 피규어에 4종의 캐릭터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매운맛 인기 지속”...식품업계, 신제품 출시

매운맛 열풍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매운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시작된 매운맛 열풍은 늦여름을 지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뜨양을 비롯한 유튜브버들의 '단계별 매운 음식 먹방'은 164만회, '매운 콜라 먹방'은 27만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먹방으로 매운맛의 인기에 힘을 실고 있다.

선선해진 날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매운맛 열풍에 식품업계는 기획전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가을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마이세프는 오는 25일까지 자사몰을 통해 매운맛 기획전을 진행한다. 18가지 매운맛 밀키트 이외에도 2가지 세트 상품을 통해 매운맛과 그 맛을 중화시켜 줄 제품을 함께 맛볼 수



있다. 마이세프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따그마 순살 닭볶음탕', '파라산귀', '허차림 매콤 로제 스테이크'를 비롯한 매콤한 맛의 밀키트들을 최대 17% 할인해 판매한다.

서선욱기자